

# 상고중국어 양상표현의 공기 제약

－ 동사와 시간부사의 상 유형을 중심으로

윤순일\*

## <目 次>

1. 서론
2. 상 유형에 따른 양상표현의 공기제약
3. 상고중국어 동사의 상황유형과 양상표현
  - 1) 중국어 동사의 상황 유형
  - 2) 정태동사와 인식양상
  - 3) 동태동사와 비인식양상
4. 상고중국어 상 표지와 양상표현
  - 1) 상고중국어의 상 표지
  - 2) 상고중국어의 상 표지와 양상표현의 공기
5. 결론

## 1. 서론

시제(tense), 상(aspect), 양상(modality) 이른바 TAM 범주는 술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시간이나 상황에 대한 화자의 관점에 관한 범주들이다. TAM 범주들은 대부분의 언어에서 의미상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때로는 하나의 형태가 하나 이상의 범주적 기능을 갖기도 하며, 때로는 상호간에 선택적 제약 관계를 보이기도 한다. 범언어적 연구에 의하면 양상어휘(modals)들은 문장 안에서 상황, 상, 인칭 등의 여러 의미범주와 종종 의미상 선택적 제약관계를 갖는다. 그리고 그 관계는 양상계통의 하위범주를 세분하는데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기

\*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학계는 현대중국어 양상어휘의 제약관계에 대하여 이미 많은 토론과 성과가 있었다.

상고중국어에도 현대중국어와 유사하게 다수의 양상어휘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범언어적 보편성을 고려한다면 이들 양상어휘들도 다른 시대나 지역의 언어와 동일하게 여러 의미범주들과 공기상의 제약이 발생했을 것으로 쉽게 추론된다. 하지만 기존의 학계는 상고중국어의 양상어휘의 통시적 발전과정에 대하여 활발한 토론이 있었을 뿐 공시적 평면에서 개별어휘가 어떠한 의미상의 제약관계를 갖는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는 현대중국어와는 달리 고대중국어의 양상은 조동사보다 양상부사로 표현되는 경우가 더 많았음에도 종래의 양상 연구가 대부분 조동사를 중심으로만 이루어졌고 고대중국어의 시, 상, 양상 등 범주에 정의, 판별기준 등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가 서로 일치하지 않았던 사실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중국어 양상표현과 상 범주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종합하고 그 성과를 상고중국어에 접목시켜 《左傳》을 중심으로 상고중국어 시기 문헌에 출현한 양상어휘들과 문장의 상 유형 사이에 발생하는 의미상의 제약 상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 결과를 통하여 상고중국어 양상표현이 갖는 양상표현으로서의 보편적 특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특정 시기에 사용되었던 개별 양상표현이 갖는 특수성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 상 유형에 따른 양상표현의 공기제약

Comrie(1976)에 따르면 상(Aspect)이란 문법의 한 범주로 동사와 관련이 있으며 '상황의 내적인 시간 구조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말한다. '了', '著', '過', '在' 등과 같은 현대중국어의 잘 알려진 상 표지들은 과거, 현재, 미래 등과 같은 시제가 아닌 어떠한 상황에 대하여 그 상황의 시간적인 구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방법을 나타낸다. 상은 양상과 마찬가지로 사건의 핵심도식을

나타내는데 있어 배경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두 범주 사이에는 의미론적으로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

Smith(1991)는 문장이 나타내는 상 의미는 문법화된 '관점상'과 어휘 내용이 갖는 시간적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상황상'의 상호 작용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상황이란 상황의 시간 구조를 뜻하는데, 일반적으로 동사나 문장이 나타내는 상태나 방식을 말한다(戴耀晶, 1997:9). 상황유형의 분류 기준과 방법은 대상이 되는 언어와 연구자에 따라 상이한데, Smith는 [±정태], [±지속], [±종결] 세 종류의 의미자질에 근거하여 중국어의 상황유형을 상태, 행위, 완수, 순간, 달성 등의 5종으로 제시한 바 있다.<sup>1)</sup>

그런데 상술한 상황유형들은 문장에서 양상표현들과 의미상의 제약 관계를 가질 수 있다. Leech(1971)에 따르면 인식류인 [가능]의 may는 이른바 '사건동사'와 연용될 경우 통상적으로 미래의 사건을 지칭하며, can의 경우 '정지성 감각동사'나 '정지성 인식동사'와 함께 사용될 때 이들 동사의 영향을 받아 can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양상 의미를 현저하게 상실한다고 하였다. Coates(1983:245)는 문헌조사의 통계결과를 근거로 'must, may, might, will, shall, would' 등 양상조동사들이 정태동사(stative verb)와 공기할 때 대부분 인식양상을 나타냄을 밝혔다.<sup>2)</sup> 아래는 Coates의 예문 일부이다. 정태성 동사인 'be', 'have'와 함께 출현한 대표적인 다의성 조동사 'may'와 'must'는 모두 인식류 양상의미로 해석된다.

- (1) I think he may be a very violent man.
- (2) He said, "I must have a temperature."

현대중국어의 조동사도 함께 출현하는 동사의 의미 유형에 따라 공기상의 제약 관계를 보인다. 湯廷池(1976)는 인식류라 할 수 있는 '推斷의 습' 뒤의 주요동사로는 동태동사나 정태동사가 모두 출현할 수 있지만, 반면 동력류인 '能力的 습'

1) Smith(1991)에 앞서 鄧守信(1985)이 '活動(activity)', '完結(accomplishment)', '達成(achievement)', 狀態(state)으로 四分하였고, 陳平(1988)은 狀態, 活動, 結束, 複變, 單變으로 五分하였다.  
 2) 彭利貞(2007:175)에서 재인용.

뒤의 주요동사로는 동태동사만이 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忻愛莉(2000)는 陳平(1988)이 제시한 5종의 동사유형 가운데 '狀態'류 동사들만이 '應該'와 함께 결합할 때에 인식류로 해석되며 '活動', '完成', '單變', '復變' 등 다른 유형의 동사들은 도의류로만 해석됨을 지적하였다.

彭利貞(2007:171-208)은 동사의 상황유형을 정태와 동태로 양분하고 각각의 다의구조를 갖는 조동사와 어떠한 의미 관계를 갖는지 고찰하였는데, 예를 들어 '意味著', '像', '等於', '姓' 등과 같은 정태성 동사들은 인식류 양상동사만 공기할 수 있거나 설사 다의조동사와 공기하더라도 인식류 양상의미로만 해석되며, '說', '殺', '留下', '辦到' 등과 같은 동태성 동사들은 비록 인식류와 비인식류 조동사와 모두 공기할 수 있지만 다의조동사에서는 비인식류 양상의미로만 해석되는 빈도가 훨씬 높았다고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문장에서 동사나 동사구가 만약 정태적인 상황을 나타낼 경우 함께 출현하는 다의성 조동사들은 주로 인식류 양상의미로만 해석되며, 반대로 비정태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경우 공기하는 조동사는 주로 비인식류로만 해석됨을 알 수 있다. 이를 양상표현을 기준으로 본다면, 인식류 양상어휘들은 주로 정태성 동사들과 공기하고, 비인식류 양상어휘는 주로 동태성 동사들과 공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彭利貞(2007:178-179, 195-196)은 다음과 같은 해석을 제시하였다. 정태적인 사건은 그 내부의 성질이 균질적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변화시키는 역량, 의도, 의무 등을 가질 수 없다. 이러한 조건에서 성립되는 것은 사건에 대한 진실성이나 사실성의 정도에 대한 판단에 해당되는 인식양상뿐이기 때문에, 비록 다의구조를 같은 조동사라 할지라도 주로 인식양상으로만 해석되는 것이다. 반면 동태적인 사건의 내부는 균질적이지 않으며 변화를 반영한다. 변화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유도된다고 볼 수 있는데, 양상의미의 관점에서 본다면 동력양상의 [의도], [능력], 도의양상의 [의무], [허가] 등이 변화를 유도하는 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전형적인 상 표지라 할 수 있는 이른바 '관점상' 표지와 양상표현 사이의 제약

관계는 보다 더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Leech(1971)는 영어의 완료상(perfective)이나 진행상(progressive) 표지들은 공기하는 조동사와 의미상 제약 관계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다의구조를 가지는 양상조동사 may는 (4)에서 [가능]과 [허가]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그런데 (3)의 may는 단지 [가능]으로만 해석되는데 이는 완료형과 공기하였기 때문이다.

(3) You may have seen me yesterday.

(4) You may see me tomorrow.

彭利貞(2007:219-309)은 현대중국어의 조동사(원문에서는 '양상동사(情態動詞)'로 표현)가 다의성 양상구조를 가지고 있더라도 現實體, 經歷體, 短時體, 進行體, 靜態持續體 등의 상 표지<sup>3)</sup>들과 공기할 경우 인식류 양상으로만 해석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5)에서 조동사 '可能'과 '可以'는 모두 가능성과 관련된 의미를 나타내지만, b의 '可能'의 경우 인식류 양상의미인 [가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완료상 표지인 了<sub>i</sub>와 공기할 수 있으며, c의 '可以'는 문맥상 동력류 [능력]이나 도의류 [허가]로만 해석되기 때문에 완료상 표지인 了<sub>i</sub>와 공기할 수 없다.

(5) a. 學會了德語.      b. 可能學會了德語.

c. \*可以學會了德語.      c. ?必須學會了德語. [彭利貞(2007:221)]

상고중국어의 조동사나 양상부사와 같은 양상표현들 또한 현대중국어와 마찬가지로 상 유형에 따른 의미상의 공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기

3) 일반적으로 '상 표지'는 Smith(1991)의 관점상 표지를 지칭한다. 현대중국어 상 표지에 대한 기준과 분류는 학자마다 다르다. Li & Thompson은 '완료상(perfective)'(了), '미완료상(imperfective, 혹은 '지속durative)''(在, 著), '경험상(experiential)'(過), '제한상(delimitative)'(동사 중첩)의 네 종류를 제시하였으며, 戴耀晶(1997:29)은 외부관찰법의 完整體와 내부관찰법의 費完整體로 양분하고 전자의 하위분류로 現實體(了), 經歷體(過), 短時體(動詞重疊)를 후자의 하위분류로 持續體(著), 起始體(起來), 繼續體(下去)를 각각 두었다. 陳前瑞(2008)나 Xiao & McEnery(2004)는 完, 好와 같은 결과보어나 下來, 下去와 같은 방향보어와 일부 복잡한 통사적인 수단까지 포함하여 20개 이상의 상 표지를 인정하기도 하였다.

존의 연구는 아직 미진한 편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동사 또는 문장의 상황유형이나 상 표지 등에 의해 실현되는 상 의미는 양상 표현들과 의미상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각각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공기 제약의 관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는 이러한 현상을 범언어적으로 보이는 양상 범주의 보편적 특성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상고중국어 문헌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 유형에 따른 양상어휘의 의미상의 제약 현상이 상고중국어 시기에 도 발생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충분히 세울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아래에서 상고중국어의 양상어휘들이 문장에서 상황유형이나 여러 수단에 의해 표현되는 상 의미의 유형에 따라 어떠한 공기상의 제약을 보이는지 문헌 조사를 통해 그 면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 3. 상고중국어 동사의 상황유형과 양상표현

#### 1) 중국어 동사의 상황 유형

전술한 바와 같이 상황이란 시간구조에 있어 동사나 문장이 보이는 상태나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상황유형은 동사를 구분하는 기준으로도 자주 사용된다. 戴耀晶(1997:13)은 상황유형에 근거하여 동사를 먼저 정태와 동태로 양분하였는데, 정태동사는 다시 속성·관계류, 심리감각류로 동태동사는 동작류(순간/지속), 결과류(순간/지속)로 나누었다. 이와 별도로 정태동사와 동태동사의 중간 단계에 자세류와 위치류를 두어 총 8개의 하위범주를 설정하였다. 郭銳(1993)는 이른바 동사의 '과정구조'에 근거하여 동사를 10類로 구분한바 있다. 郭銳(1997)에서는 전체 동사를 정태동사(stative verbs)와 동태동사(dynamic verbs)로 먼저 양분하고 동태동사를 다시 동작동사(action verbs)와 변화동사(change verbs)로 구분하여 郭銳(1993)에서 귀납한 10類를 각각 귀속하였다.

이상의 동사 분류 체계는 의미론적인 관점에서 [+정태], [+지속], [+종결] 등

시간구조에 관한 의미자질들을 가장 주요한 기준으로 적용한 결과물이다. 두 방식 모두 최하위 단계의 구분에서는 형식적 특징이라 할 수 있는 ‘-了’, ‘-著’, ‘-過’, ‘在’, ‘시량목적어’ 등과의 공기 여부를 분류의 근거로 사용하였다. 상고중국어에는 이러한 형식적 특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하위 범주를 구분하는 데 있어 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절에서 고찰하려고 하는 상고중국어 양상표현이 보이는 의미상의 제약 관계는 정태와 비정태의 대분류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위의 방식과 같이 동사를 세분할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 따라서 본고는 郭銳(1997)의 방식을 참고하여 상고중국어의 동사를 정태동사, 동작동사, 변화동사로 3분하여 아래의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 2) 정태동사와 인식양상

### ① 如

‘.....와 같다(好像, 如同)’의 의미를 나타내는 상고중국어 동사 ‘如’는 [-동태], [-지속], [-종결]의 자질을 갖는 전형적인 정태동사이다. 상고중국어 문헌에서 이러한 ‘如’와 함께 출현하는 양상표현은 인식류 양상의미만을 나타내는 용례만 확인되며 동력류나 도의류 양상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 아래의 (6)-(7)에서 ‘如’는 다의성 양상부사인 ‘其’와 함께 출현하였다. 상고중국어 양상부사 ‘其’는 인식양상 [가능], 도의양상 [필요], 동력양상 [의지]의 용법이 모두 있는 전형적인 다의성 양상부사이지만 정태동사 ‘如’와 결합할 경우 모두 [가능]으로 해석된다.

- (6) 不可鄉邇, 其猶可撲滅者, 其如蔡哀侯乎! (‘가까이 갈 수도 없는데도, 오히려 끌 수 있는 것과 같다’라 한 것은 아마도 채나라의 애후와 같을 것이다.) 《左傳·莊公14年》
- (7) 國主山川, 故山崩川竭, 君爲之不舉, 降服, 乘縵, 徹樂, 出次, 視幣, 史辭以禮焉. 其如此而已. 雖伯宗, 若之何? (그러므로 산이 무너지고 하천이 마르면 군주는 성찬을 들지 않고, 의복의 예를 낮춰 입으며, 장식이 없는 수레를 타고, 음악을 거두며, 평소의 거처에서 나와 교외에

머물며, 신께 예물을 바치고, 사관은 축문을 써서 신께 바칩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이와 같을 뿐일 것입니다.) 《左傳·成公5年》

하지만 본래 ‘……와 같다(好像, 如同)’의 의미를 나타내는 ‘如’가 사동용법으로 쓰여 ‘……와 같게 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如’는 [-동태]의 자질을 상실한다. 이러한 경우 ‘如’와 함께 쓰인 조동사나 양상부사는 모두 비인식류 양상의미를 나타낸다. 아래의 (8)에서 ‘如’는 모두 사동용법으로 사용되어 [-동태]의 자질을 상실하였다. 동태성 동작동사로 활용된 ‘如’와 함께 출현한 양상부사 ‘其’는 더 이상 인식류로 해석되지 않는다. (8)의 ‘其’는 화자가 청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도의양상인 [필요]를 나타낸다.

(8) 焉逆羣好也, 其如舊而加敬焉. (모든 친한 나라들과도 사이가 나빠집니다. 예전과 같이 하여 공경해야 합니다.) 《左傳·昭公3年》

상고중국어 ‘必’도 인식양상 [필연], 도의양상 [필요], 동력양상 [의지]를 모두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다의성 양상부사이다. 하지만 동태화된 ‘如’와 함께 쓰이게 되면 ‘必’은 인식양상 [필연]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9)에서와 같이 동력양상 [의지]이나 (10)에서와 같이 도의양상 [필요]로 실현된다.

(9) 君以弄馬之故, 隱君身, 棄國家. 群臣請相夫人以償馬, 必如之. (임금께서 가지고 놀던 말 때문에, 임금님의 몸을 숨기시고, 나라를 버리셨습니다. 신들은 말 기르는 자를 도와 말을 갚아, 그와 같게 하겠습니다.) 《左傳·定公2年》

(10) 子無辭也. 寡人豈責子之令太子必如寡人也哉? 寡人固生而有之也. (그대는 사양하지 말라. 과인이 언제 그대에게 태자를 과인같이 되도록 가르치라고 요구하였던가?) 《呂氏春秋·貴直論第3》

## ② 無

상고중국어에서 ‘없다(沒有)’ 즉 존재에 대한 부정을 나타내는 동사 ‘無’는 [-동태], [-지속], [-중결]의 자질을 갖는 정태동사이다. 다의성 양상부사 ‘其’는 정태

동사로 쓰인 ‘無’와 공기하면 그 의미가 인식양상 [가능]으로 실현된다.

- (11) 晉侯其無後乎! 王賜之命, 而惰於受瑞, 先自奔也已, 其何繼之有? (진 후는 아마도 후손을 두지 못할 것입니다! 왕이 내린 명을 받을 때 불손하게 신표를 받았으니 자신이 먼저 예를 버린 것입니다. 어찌 그에게 후손이 있겠습니까?) 《左傳·襄公31年》
- (12) 鄭有禮, 其數世之福也, 其無大國之討乎! (정나라는 예를 갖췄으니 몇 세대에 걸쳐 복을 받고 대국의 토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左傳·襄公31年》
- (13) 善哉, 吾得聞此數也! 然自今子其無事矣.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이 몇 가지를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귀하에게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左傳·襄公31年》

양상부사 ‘其’는 종종 반어문에 쓰이는데, 반어문에 쓰는 ‘其’의 의미도 인식양상 [가능]으로 간주할 수 있다. 아래는 정태동사 ‘無’가 ‘其’와 함께 반어문에 사용된 용례이다.

- (14) 欲加之罪, 其無辭乎? 臣聞命矣. (벌을 내리시려 한다면 어찌 구실이 없겠습니까? 소신은 명을 받들겠습니다.) 《左傳·僖公10年》
- (15) 子羽曰, “當璧猶在, 假而不反, 子其無憂乎?” (자우가 물었다. “현 군주(當璧)가 건재한 데 빌리고서 돌려주지 않으면 그대는 걱정되는 일이 없겠소?”) 《左傳·昭公元年》

다의성 양상부사 ‘必’은 정태동사로 쓰인 ‘無’와 공기하면 그 의미가 인식양상 [필연]으로 실현된다.

- (16) 晉士蔿又與群公子謀, 使殺游氏之二子. 士蔿告晉侯曰: “可矣, 不過二年, 君必無患.” (진짚 대부 사위가 다시 공자들과 모의하여 유씨의 두 아들을 죽이게 했다. 사위가 진 헌공에게 보고했다. “이제 됐습니다. 2년 안에 반드시 군주의 근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左傳·莊公24年》
- (17) 子犯曰: “戰也! 戰而捷, 必得諸侯. 若其不捷, 表裡山河, 必無害也.”

(자범이 말하였다. “싸우자는 말입니다! 싸워 승리하면 반드시 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설사 승리를 거두지 못해도 우리 진나라는 앞뒤로 황하와 산으로 보호받으니 절대 해는 없을 것입니다.”) 《左傳·僖公28年》

하지만 ‘無’가 본래 ‘없다(沒有)’가 아닌 ‘.....가 아니다(不)’ 또는 ‘.....지 마라(不要)’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함께 술어의 동태성 여부는 후속 동사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 후속 동사가 [+동태]의 자질을 갖는다면 함께 출현하는 다의성 양상표현들은 인식양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18)의 ‘無’는 단순히 존재에 대한 부정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금지를 나타낸다. 후속 동사인 ‘謂(여기다)’는 동태적 성질을 갖는 동작동사이다. 따라서 다의성 양상부사 ‘其’는 여기에서 인식양상 [가능]으로 해석되지 못하고 도의양상 [필요]로 해석된다. (19)의 ‘無’도 금지를 나타낸다. 후속 동사구 ‘盛鶴列麗譙之間’가 나타내는 의미는 누각에서 군대를 사열하는 동태적 행위이다. 선행하는 다의성 양상어휘 ‘必’은 도의류 [허가]로 해석된다.

(18) 君其無謂郝小. 蠱蠱有毒. 而況國乎? (임금께서는 주나라를 작다고 하지 마십시오. 벌과 전갈에도 독이 있거늘 하물며 나라이겠습니까!) 《左傳·僖公22年》

(19) 君亦必無盛鶴列於麗譙之間. (임금께서는 또한 높은 누각 위에서 군대를 사열할 생각을 말아야 한다.) 《莊子·雜篇》

### 3) 동태동사와 비인식양상

전술한 바와 같이 彭利貞(2007:193-194)은 현대중국어에서 동태동사는 인식류와 비인식류 조동사 모두와 자유롭게 공기할 수 있지만, 다의성 조동사와 공기하는 경우 해당 조동사는 비인식 양상의미로만 해석되는 경향이 매우 현저하다고 하였다. 특히 대표적인 다의성 조동사 ‘應該’, ‘要’, ‘能’, ‘會’가 동태동사와 결합할 때 ‘會’에서 보이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모두 비인식 양상의미로만 해석된다고 하였다. 아래는 彭利貞(2007:196-198)이 제시한 예이다. 순서대로 각각 [의무], [의지], [의무], [능력], [허가], [능력] 등 비인식 양상의미를 나타낸다.

- (20) 也許我不應該這樣說你. (아마 내가 너를 이렇게 말해서는 안됐겠지.)  
(王朔《頑主》)
- (21) 蘇羊又羞又怕, 卻忍不住要問. (수양은 부끄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였으나 참지 않고 물어보려 했다.) (王朔《頑主》)
- (22) 你不要跑. (너는 뛰지 마라.) (畢淑敏《預約死亡》)
- (23) 你能不能教教我. (당신이 나를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王朔《一點正經都沒有》)
- (24) 隨便問一句, 我能練氣功嗎? (말씀 좀 묻겠습니다. 제가 기공을 수련할 수 있나요?) (王朔《癡人》)
- (25) 幸虧我還會畫畫兒. (다행히도 아직은 그림을 그릴 수 있어) (阿城《棋王》)

彭利貞은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문장 또는 동사가 나타내는 상황 구조의 동태적 특성이 다의성 조동사의 의미표현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상고중국어 문헌에서도 동태동사는 인식류 양상표현과 비인식류 양상표현에서 모두 자유롭게 공기함을 확인할 수 있다. 郭銳(1997)의 기준에 따르면 상고중국어 ‘求(구하다)’, ‘從(따르다)’는 동작동사에 해당되며 ‘成(이루다)’, ‘死(죽다)’는 변화동사에 해당된다. 모두 [+동태]의 자질을 갖는 동태동사에 속한다. 이들 동사는 (26)–(30)에서와 같이 비인식류 양상표현과 공기할 수 있다. 함께 쓰인 ‘欲’, ‘其’, ‘能’, ‘必’, ‘可’ 등의 양상표현들은 각각 [의지], [의무], [능력], [의지], [허가]의 비인식류 양상의미를 나타낸다.

- (26) 公攝位而欲求好於邾, 故爲蔑之盟. (은공은 섭정의 지위에 있으면서 주와 우호관계를 구하고자 했기 때문에 멸에서 주나라와 동맹을 맺은 것이다) 《左傳·隱公元年》
- (27) 穆叔曰, “趙孟欲一獻, 子其從之.” (목숙이 말하였다. “조맹이 일헌을 하고자 하니 그대들은 따라야 합니다.”) 《左傳·成公13年》
- (28) 穆公不忘舊德, 俾我惠公用能奉祀于晉. 又不能成大勳, 而爲韓之師. (목공은 과거의 덕을 잊지 않으시고 혜공이 진나라의 제사를 받을 수 있게 도왔습니다. 그러나 목공은 또 큰 공은 이룰 수 없어서 한의 군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左傳·成公13年》

- (29) 一日之行, 所欲必成, 玩好必從. (하루를 나가더라도 하고 싶은 일은 반드시 이루고 즐기고 좋아하는 것을 반드시 따른다.) 《左傳·哀公元年》
- (30) 公冉務人曰, “若君命, 可死, 非君命, 何听?” (공염무인이 말하였다. “임금의 명령이라면, 죽어도 괜찮지만, 임금의 명령도 아닌데 어찌 따르시겠습니까?”) 《左傳·文公18年》

또한 이들 동태동사들은 (28)-(31)과 같이 인식류 양상표현과도 공기할 수 있다. 이들과 공기한 ‘必’, ‘其’, ‘其’, ‘必’은 순서대로 각각 [필연], [가능], [가능], [필연]을 나타낸다.

- (31) 令尹爲王, 必求諸侯. 晉少孺矣, 諸侯將往. (강하기만 하고 의롭지 못한 것을 말하였습니다. 영윤이 왕이 되면, 반드시 제후들에게 구할 것입니다.) 《左傳·昭公元年》
- (32) 姪其從姑, 六年其逋, 逃歸其國, 而棄其家, 明年其死於高梁之虛. (조카가 고모를 좇을 것이며, 6년 만에 돌아갈 것이며 자기의 나라로 도망쳐 돌아와 그 아내를 버리고, 이듬해에 고향의 언덕에서 죽을 것입니다.) 《左傳·僖公15年》
- (33) 公問於衆仲曰: “衛州吁其成乎?” (은공이 중중에게 물었다. “위나라의 주우가 이를 수 있겠는가?”) 《左傳·隱公4年》
- (34) 仲以君命召惠伯, 其宰公冉務人止之, 曰: “入必死.” (양중이 군명을 빙자하여 혜백을 궁으로 소환했다. 그의 가제인 공염무인이 만류하며 말했다. “들어가면 필경 죽을 것입니다.”) 《左傳·文公18年》

전술한 바와 같이 현대중국어의 ‘應該’, ‘要’, ‘能’, ‘會’은 동태동사와 함께 쓰일 경우 대개 비인식류로 해석된다. 상고중국어의 ‘其’와 ‘必’은 현대중국어의 ‘應該’, ‘要’, ‘能’, ‘會’와 마찬가지로 당시 매우 보편적으로 사용된 전형적인 다의성 양상표현이었다. ‘其’와 ‘必’은 [가능]이나 [필연]과 같은 인식양상을 나타낼 수 있으면서도 문맥에 따라 [필요], [의지]와 같은 비인식 양상의 의미도 나타낼 수 있었다. 그러나 ‘應該’, ‘要’, ‘能’, ‘會’와는 달리 이들은 동태동사와 공기하면서 (31), (34)과 같이 비인식류로도 사용되고, (32), (33)과 같이 인식류로도 사용된다. 즉, ‘應該’, ‘要’, ‘能’, ‘會’에서 보이는 의미 실현의 편향성이 상고중국어 다의성 양상표현에서

는 발견되지 않는 것이다.

상고중국어 시기 인식양상을 실현하는 주요한 표현들로는 ‘其’, ‘殆’, ‘必’, ‘庶’ 등이 있는데, 이들은 대개의 경우 미발생(未然) 사건에 대한 예측으로서 인식의미를 나타냈을 뿐 기발생(已然)의 사건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반면 ‘應該’, ‘要’, ‘能’, ‘會’의 인식용법은 미발생(未然)과 기발생(已然) 사건에 모두 사용될 수 있다. 미발생 사건에 대한 예측과 같은 조건이라면 동태적 상황이라도 아직 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일종의 균질적 상태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동사의 동태성 여부와 관계없이 화자가 사건의 진실성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상고중국어 ‘其’, ‘殆’, ‘必’, ‘庶’의 인식 기능은 바로 이 단계에서 획득된 것이다. 반면 현대중국어의 ‘應該’, ‘要’, ‘能’, ‘會’의 인식 기능은 기발생의 사건으로 대상을 확대하였다. 기발생의 조건에서는 화자 입장에서 정태적 상황만이 사건의 진실성에 대해 판단할 여지를 제공한다. ‘應該’, ‘要’, ‘能’, ‘會’이 보이는 의미 실현의 편향성은 바로 이와 같은 사용된 맥락의 차이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한다.

#### 4. 상고중국어 상 표지와 양상표현

##### 1) 상고중국어의 상 표지

상고중국어의 양상어휘들이 다른 범주와 보이는 공기제약 현상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고중국어의 상과 양상에 관한 표현들과 그 의미체계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대중국어의 전형적인 상 표지라 할 수 있는 ‘了’, ‘著’, ‘過’ 등은 근대중국어 시기에 이르러서야 생산되었다.<sup>4)</sup> 상고중국어 시기 문법 범주로서 상 체계는 여전히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상고중국어에 의미 범주로서의 상 체계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뜻하지 않는다. 어떠한 언어에서라도 문장의 상 의미는 동사의 상

4) 吳福祥(2015:257-265) 참고.

황유형이나 시간부사의 어휘의미와 같은 비문법적인 수단으로 충분히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종래의 학계는 근대 이전의 상은 실사에 의해 표현되는 어휘의미라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면서도 관련 어휘나 문장에 반영된 구체적인 상 의미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 楊伯峻·何樂士(1992), 李佐豐(2004), 向熹(2010) 등은 시간부사가 나타내는 '완료'나 '진행'의 의미들을 언급하였으나 단순히 시간과 유관한 개념으로만 처리하고 이들을 '시제', '빈도', '순서' 등과 같은 층위에서 논의하였다. 唐賢清(2004), 吳福祥(2003), 楊榮祥(2007) 등은 '已然或過去(已)', '未然或將來(將)'과 같이 두 가지 개념을 중첩하여 시간부사의 상 의미를 설명하였는데, '已然', '未然' 등이 지시하는 바를 설명하지 않아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없었다.

左思民(2007)은 보다 구체적으로 상고중국어의 '已', '既', '業'가 [實現]을 '嘗', '曾'은 [結束]을 '未'는 [未實現]의 상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는데, 左思民은 이들을 모두 문법적 상 표지가 아닌 어휘적 상 표지로 처리하였다.<sup>5)</sup> 楊永龍(2001:23-26)은 이른바 '광의의 상 표지'<sup>6)</sup>를 설정하여 《朱子語類》의 '既', '已', '已自', '已是', '既已', '已經' 등의 시간부사를 모두 '了', '過' 등과 같은 층위의 완료 상 표지로 처리하였다.

Pulleyblank(1995)는 상고중국어의 상 표지로 완료상(perfective)을 나타내는 '已', '既' 그리고 이들의 부정형이라 할 수 있는 조사 '未'를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문말조사 '矣'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현대중국어 '了'<sub>2</sub>에 상당하는 완료(perfect) 표지라고 주장하였다.<sup>7)</sup> 魏培泉(2015)은 상고중국어의 '已', '既'는 완료상(完成體)을 '嘗', '曾'은 경험상(經驗體)을 나타내는 문법상 표지로 처리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已', '既'가 쓰인 문장은 [+지속]의 동작동사와 [-지속]의 성취

5) 左思民은 같은 논문에서 '已', '既', '嘗', '曾' 등의 부사들은 모두 시제표지의 기능도 겸하여 [過去]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상고중국어에서 문법적 상표지는 [實現]을 나타내는 '矣'만이 인정되었는데, 이마저도 [實現]이라는 상 의미와 [斷定]의 어기를 동시에 나타내며, 때로는 시제표지로 쓰여 [過去]를 나타내는 비전형적 상 표지로 처리되었다.

6) 楊榮祥(2007:23)의 '광의의 상 표지'는 상 의미를 나타내는 모든 형식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문법형식, 어휘형식, 문장구조 등이 모두 포함된다.

7) 劉承慧(2007)는 '矣'의 [완료] 기능을 인정하면서도 상고중국어 시기에 이미 [결과], [평가] 기능도 파생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동사나 상태동사를 모두 수식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의 종결점을 나타내는 상 표지로 발전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같은 이유에서 ‘嘗’, ‘曾’도 경험상 표지로 간주하였다.

본 절의 목적은 상고중국어 양상 표현의 문장의 상 유형에 따른 공기 제약 관계를 살피려는 것이며, 당시에 문법화된 상 표지가 어떻게 존재했는지를 논하려는 것이 아니다. 본고는 상고중국어의 시간부사가 시제, 빈도 등의 의미와 함께 상 의미도 나타낸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이들에게 楊榮祥(2007:23)이 언급한 ‘광의의 상 표지’의 지위를 부여한다.<sup>8)</sup> 또한 Pulleyblank(1995), 左思民(2007), 鄭路(2008), 徐世梁(2014), 魏培泉(2015) 등을 참고하여 상고중국어 시간부사의 상 체계를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비완전상 (非完整體)	예정(將行)	將其且方
	지속(持續)	尚猶
	기시(起始)	初始新
완전상 (完整體)	실현(實現)	既已
	경험(經驗)	嘗曾

## 2) 상고중국어의 상 표지와 양상표현의 공기

### ① 既, 已와 嘗, 曾

戴耀晶(1997:35, 57)에 의하면 실현상은 현실의 완전한 동태적 사건을 나타내며, 동태성, 안정성, 현실성의 의미특징을 갖는다. 현대중국어는 동사 뒤의 ‘了’가 이 기능을 담당하며 상고중국어는 ‘既’와 ‘已’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경험상은 사건의 시간 경과성(歷時性)을 강조하며, 시간이 경과하여 종결되었다는 의미특징을 갖는다. 현대중국어는 ‘過’가 이 기능을 담당하며 상고중국어는 ‘嘗’와 ‘曾’이

8) 이는 상고중국어에서 상 의미를 나타내는 시간부사가 어휘적 상 표지일 수도 있지만 일부는 (비전형적인) 문법적 상 표지로 발전했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손정(2014:22)이 현대중국어 시간부사에 대하여 말한 바와 같이 이들은 모두 상 범주의 강제성 성분이 아니다.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이미 실현이나 경과가 되었거나 화자에게 이미 실현이나 경과된 것으로 여겨지는 사건은 양상표현들과 결합할 때에 대개 인식류만 함께 호응하며 도의류나 동력류는 배척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彭利貞(2007:220-221)은 이미 실현된 사건은 화자가 도의나 동력을 발휘하여 상황을 바꿀 여지가 없으며, 단지 해당 사건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추측이나 추측과 같은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의미상의 제약은 상고중국어 문장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상고중국어에서 실현상과 경험상을 나타내는 ‘既’, ‘已’, ‘嘗’, ‘曾’ 등이 인식류 양상표현과 공기한 용례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왜냐하면 상고중국어에서 주요한 인식류 양상표현들인 ‘其’, ‘殆’, ‘必’, ‘庶’ 등은 주로 기발생(已然)의 사건에 대한 예측으로서 인식양상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既’와 ‘已’가 포함된 문장에 함께 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고가 검토한 상고중국어 문헌에서 인식류 양상표현이 실현상 또는 경험상 표지와 함께 쓰인 용례는 아래의 한 경우밖에 보이지 않는다.

(35) 繼父不同居也者, 必嘗同居, 皆無主後。《禮記·喪服第十五》(계부와 동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 이미 동거했었다는 것이고 모두 주후가 없었던 것이다.)

위의 예에서 상고중국어 ‘必’은 도의양상과 인식양상을 모두 나타낼 수 있는 다의구조를 갖는 양상표현이다. 위의 예에서 ‘必’은 경험상을 나타내는 ‘嘗’과 함께 출현하였는데, 이와 같은 조건에서 ‘必’은 도의양상 [필요]가 아닌 인식양상 [필연]으로만 해석될 수 있다. ‘必’의 도의류 양상의미의 실현이 경험상 표지 ‘嘗’에 의해 제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將, 其, 且, 方<sub>1</sub>

상고중국어에서 예정을 나타내는 ‘將’, ‘其’, ‘且’, ‘方<sub>1</sub>’은 화자가 미래의 시점에

발생할 사건에 대하여 내리는 예측을 나타낸다. 이들 대부분은 인식류 양상표현과 중첩되기도 한다. 또한 상고중국어의 인식류 양상의미를 나타내는 표현들은 대부분 미발생의 사건에만 사용되기 때문에 상호간에 의미상의 불합치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서로 함께 출현하는 용례는 매우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36) 天未絕晉, 必將有主. 主晉祀者, 非君而誰? (하늘이 아직 진나라를 멸하지 않은 까닭은 반드시 장차 주인을 세우려 했던 것 때문일 것이다. 진나라의 제사를 주관할 자, 지금의 군주가 아니면 누구겠는가?) 《左傳·僖公24年》
- (37) 終之實難, 命尹其將不免. (실로 끝맺음이 어렵습니다. 영운은 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左傳·哀公元年》

### ③ 初, 始, 新

상고중국어 '初', '始', '新'는 동작의 개시를 나타내는 시간부사이다. 동작의 '시작'에 관련된다는 점에서 이들은 현대중국어의 시작상 표지인 '起來'와 관련성이 있다. '起來'나 '初', '始', '新'가 나타내는 시작상은 시간 구조에 있어 미래를 지향한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상고중국어의 인식류 양상표현들은 주로 미래의 사건에 예측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공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 (38) 樹吾墓櫨, 櫨可材也, 吳其亡乎! 三年, 其始弱矣. 盈必毀, 天之道也. (나의 무덤에 가라는 나무를 심어다오. 그 가나무가 자라서 재목이 될 만하면 아마 오나라는 망할 것이다. 이로부터 3년이면 쇠약하여지기 시작하리니 가득 차면 허물어지는 것이 하늘의 도다.) 《左傳·哀公11年》

한편 [능력]이나 [의지]와 같은 동력양상이 언급하는 사건은 대개의 경우 미래의 시점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그리고 [의무]나 [필요] 등의 도의양상이 청자에게 부여하는 의무도 미래 시점에 실현된다. 따라서 현대중국어의 '起來'는 동력류, 도의류 양상표현들과 공기할 수 있다.

- (39) 哪都沒壞, 充上氣就能浮起來. (어느 곳도 망가지지 않았다. 바람을 넣는다면 뜰 수 있었다.) (《人民日報》)
- (40) 發展中國家應該團結起來. (개발도상국은 반드시 단결해야 한다.) (《人民日報》) [彭利貞(2007:245-246)]

하지만 상고중국어의 ‘初’, ‘始’, ‘新’이 동력류, 도의류 양상표현과 함께 쓰인 용례는 아직까지 찾을 수 없었다.

④ 尙, 猶

상고중국어 시간부사 ‘尙’, ‘猶’는 동작이나 상태의 지속을 나타낸다. ‘지속’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현대중국어의 지속상 표지인 ‘著’와 공통점이 있다. 지속상 표지 ‘著’는 정태적 사건에 쓰이는 ‘著<sub>1</sub>’와 동태적 사건에 쓰이는 ‘著<sub>2</sub>’로 구분된다. 彭利貞(207:239-243)에 의하면 다의성 조동사가 ‘著<sub>1</sub>’와 공기하면 인식류로 해석되고, ‘著<sub>2</sub>’와 공기하면 비인식류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아래의 예에서 ‘掌握著’은 정태적 동작을 나타낸다. 인식류 조동사인 ‘可能’만 함께 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41) 可能掌握著現代主義  
\*可以掌握著現代主義  
?必須掌握著現代主義 [彭利貞(2007:239)]

지속을 나타내는 ‘尙’, ‘猶’도 위의 예와 마찬가지로 함께 출현하는 동사의 동태성 여부에 따라 공기하는 다의성 양상표현의 해석이 결정된다. (42)의 ‘可撲滅’와 (43)의 ‘在敝邑之城下’는 모두 균질적 상태인 정태적 상황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들과 함께 출현한 其의 양상의미는 인식류 [가능]으로만 실현된다.

- (42) 惡之易也, 如火之燎于原, 不可鄉灑, 其猶可撲滅?(악한 일은 하기가 쉬워 마치 불들판을 활활 태우는데 그 불 쪽으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 같으니 그 불을 끌 수가 있겠는가?) 《左傳·隱公6年》
- (43) 拜君之勤鄭國, 微君之惠, 楚師其猶在敝邑之城下. (임금님께서서 우리

정나라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금님의 은혜가 없었던들 초나라 군대는 아직도 우리 고을 성 밑에 있을 것입니다.) 《左傳·哀公元年》

## 5. 결론

본고는 중국어 양상표현과 상 범주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종합하여 《左傳》을 중심으로 상고중국어 시기 문헌에 출현한 양상어휘들과 문장의 상 유형 사이에 발생하는 의미상의 제약 상황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로 다음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상고중국어 다의성 양상표현이 정태동사와 결합하는 경우 인식류로 해석된다. 본래 정태동사였던 동사들이 사동용법이나 의동용법 등에 의해 동태화될 경우, 공기한 다의성 양상표현은 비인식 양상의미로 해석된다.

둘째, 상고중국어 동태동사는 인식류 양상표현과 비인식류 양상표현에서 모두 자유롭게 공기한다.

셋째, 상고중국어의 인식류 양상표현은 주로 미발생의 사건을 예측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넷째, 상고중국어에서 실현을 나타내는 ‘既’, ‘已’와 경험을 나타내는 ‘嘗’, ‘曾’는 인식류 양상표현들과 대부분 공기하지 않는다.

다섯째, 상고중국어에서 예정을 나타내는 ‘將’, ‘其’, ‘且’, ‘方’은 인식류 양상표현과 중첩되며 서로 공기되어 사용될 수 있다.

여섯째, 상고중국어에서 시작을 나타내는 ‘初’, ‘始’, ‘新’ 등은 인식류 양상표현만 함께 공기할 수 있다.

일곱째, 상고중국어에서 지속을 나타내는 ‘尚’, ‘猶’는 정태동사와 공기할 경우 인식류 양상표현과 공기할 수 있다.

〈參考文獻〉

- 陳前瑞,『漢語體貌研究的類型學視野』,北京,商務印書館,2008.
- 戴耀晶,『現代漢語時體系系統研究』,杭州,浙江教育出版社,1997.
- 鄧守信,「漢語動詞的時間結構」,『語言教學與研究』第4期,1985:7-17.
- 郭銳,「漢語動詞的過程結構」,『中國語言』第6期(總第237期),1993:410-418.
- 郭銳,「過程和非過程 漢語謂詞性成分的兩種外在時間類型」,『中國語言』第3期(總第258期),1997:162-175.
- 焦一河,「上古漢語動詞界性初探」,『歷史語言學研究』第十一輯,2017:317-329.
- 李佐豐,『古代漢語語法學』,北京,商務印書館,2004.
- 劉承慧,「先秦「矣」的功能及其分化」,『語言與語言學』8.3,2007:743-766.
- 梅祖麟,「先秦兩漢的一種完貌句式-兼論現代漢語完貌句式的來源」,『中國語言』第4期(總第271期),1999:285-294.
- 彭利貞,『現代漢語情態研究』,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2007.
- 蒲立本 著 孫景濤 譯,『古漢語語法綱要』,北京,語文出版社,2006.
- 湯廷池,「助動詞“會”的兩種用法」,『語文周刊』第1427輯,1976.
- 唐賢清,『朱子語類副詞研究』,長沙,湖南人民出版社,2004.
- 魏培泉,「上古漢語到中古漢語語法的重要發展」,『古今通塞:漢語的歷史與發展』,2003:75-106.
- 魏培泉,「古漢語時體標記的語序類型與演變」,『語言與語言學』,2015:213-247.
- 吳福祥,『敦煌變文12種語法研究』,開封,河南大學出版社,2003.
- 吳福祥,『近代漢語語法』,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2015.
- 吳怡寬,『上古漢語時間語義範疇的產生與發展』,碩士論文,台灣,國立暨南國際大學中國語文學系(研究所),2014.
- 向熹,『簡明漢語史』第二十輯下卷,北京,商務印書館,2010.
- 忻愛麗,『台灣閩南語情態研究』,新竹,台灣清華大學博士學位論文,1999.
- 徐世梁,「《左傳》中時間系統的表達」,『古典文獻研究』第二十輯下卷,2017:267-278.
- 楊伯峻·何樂士,『古漢語語法及其發展』,北京,語文出版社,1992.
- 楊榮祥,『近代漢語副詞研究』,北京,商務印書館,2005.
- 鄭路,『《左傳》時間範疇研究』,北京,中國人民大學博士學位論文,2008.
- 左思民,「漢語時體標記系統的古今類型變化」,『漢語學報』第2期,2007:11-23.
- 손 정,『현대중국어 시간부사 의미기능 연구』,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4.
- Coates, Jennifer, *The Semantics of the Modal Auxiliaries*, London & Canberra:

- Croom Helm, 1983.
- Comrie, B., *Aspect*, Cambridge, Cambridge Uni. Press, 1976.
- Leech, G. N., *Meaning and the English Verb*, London, Longman, 1971.
- Li, C. N. & Thompson, S. A., *Mandarin Chinese: A Functional Reference Grammar*, Berkeley/Los Angeles/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1.
- Richard Xiao & Tony McEnery, *Aspect in Mandarin Chinese: A corpus-based study*,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2004.
- Smith, C. S., *The Parameter of Aspect*, Dordrecht/Boston/Lond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1.
- Pulleyblank, Edwin G., *Outline of Classical Chinese Grammar*, Vancouver, UBC Press, 1995.

〈Abstract〉

Co-occurrence Restriction of Modal Expressions in Ancient Chinese:  
Based on the Aspectual Type of Verbs and Adverbs

Yoon, Soon-II

This paper analyzes the semantic constraints that arise between verbs and modal expressions or adverbs and modal expressions that appear in 《左传》.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irst, in ancient Chinese, if a polysemous modal word is combined with a static verb, it is interpreted as a epistemic modality.

Second, in ancient Chinese, dynamic verbs is used freely with both epistemic and non-epistemic expression.

Third, in ancient Chinese, epistemic modal words could only used in already happened incident.

Fourth, in ancient Chinese, ‘既’, ‘已’ can represent ‘perfective’. ‘嘗’, ‘曾’ can represent ‘experiential’. They could not be used with epistemic modal expressions.

Fifth, in ancient Chinese, ‘將’, ‘且’, ‘且’, ‘方’ can represent ‘prediction’. They could be used overlaid with each other.

Sixth, in ancient Chinese, ‘初’, ‘始’, ‘新’ can represent ‘inchoate’. They could be used only with epistemic modal expressions.

Seventh, in ancient Chinese, ‘尚’ and ‘猶’ can represent ‘duration’. They could be combined with epistemic modals if it appears with a static verb.

Eighth, ‘尚’ and ‘猶’ representing duration can be combined with the epistemic modals if it appears with a static verb.

Key words: co-occurrence restriction, ancient chinese, modal expression, static verb, dynamic verb

이 논문은 2019년 4월 24일에 접수되어 2019년 5월 8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9년 5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